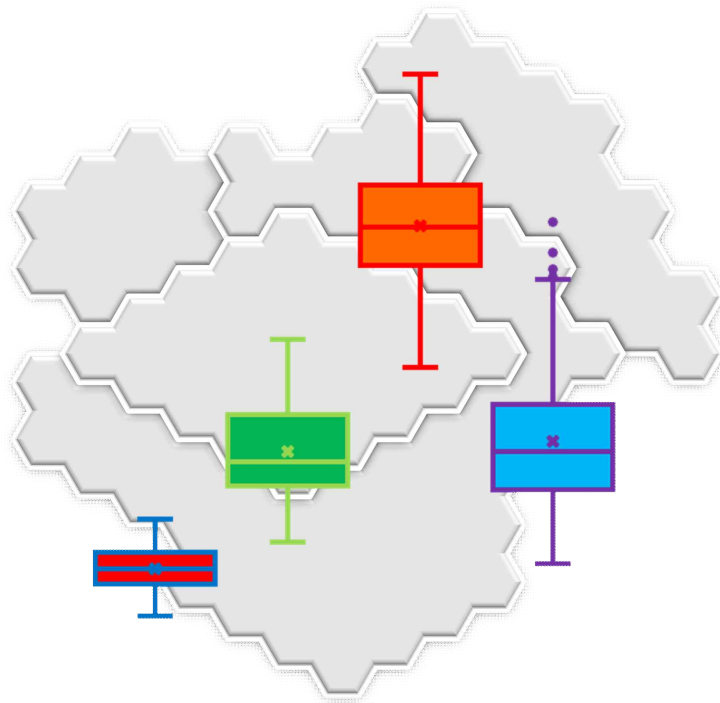


수도권역 만성질환 통계 알리미



[일러두기]

- **발간 목적:**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지역별 통계 생산이 가능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등을 지속·제공함으로써 지자체와의 소통 채널로 활용
 - 이번 호는 ‘혈당수치 인지율’에 관한 지역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 호는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제공 예정임

○ 자료 작성 기준

본 자료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함

자료원 1. 지역사회건강조사

- 지표 결과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구조 차이를 표준인구('05년 추계인구)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작성
-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위수로 제시

자료원 2. 국민건강영양조사

- 연도별 추이 결과는 연령구조 차이에 따른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표준인구('05년 추계인구)로 표준화하여 제시
- 당해연도 자료만으로 적정 표본수 확보가 어려운 만성질환 관리 지표는 3년 통합시기에 공표하며, '24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원 3.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자료

-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임
- 온열질환자(추정 사망자 포함) 신고 자료는 ‘발생장소’ 및 ‘발생일’ 기준임

○ 다음 호 발간일: 2025. 10. 30.(목)

* 7월부터 격주 발간으로 10월은 2회차 발간 예정(10.16., 10.30.)

목 차

1. 혈당수치 인지율 지역 통계 현황	1
2.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만성질환_당뇨병)	5
3. 2025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9.25.기준)	8
4. 지역 만성질환사업 소개	17
[참고1] 당뇨병 알아보기	18
[참고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19

[혈당수치 인지율]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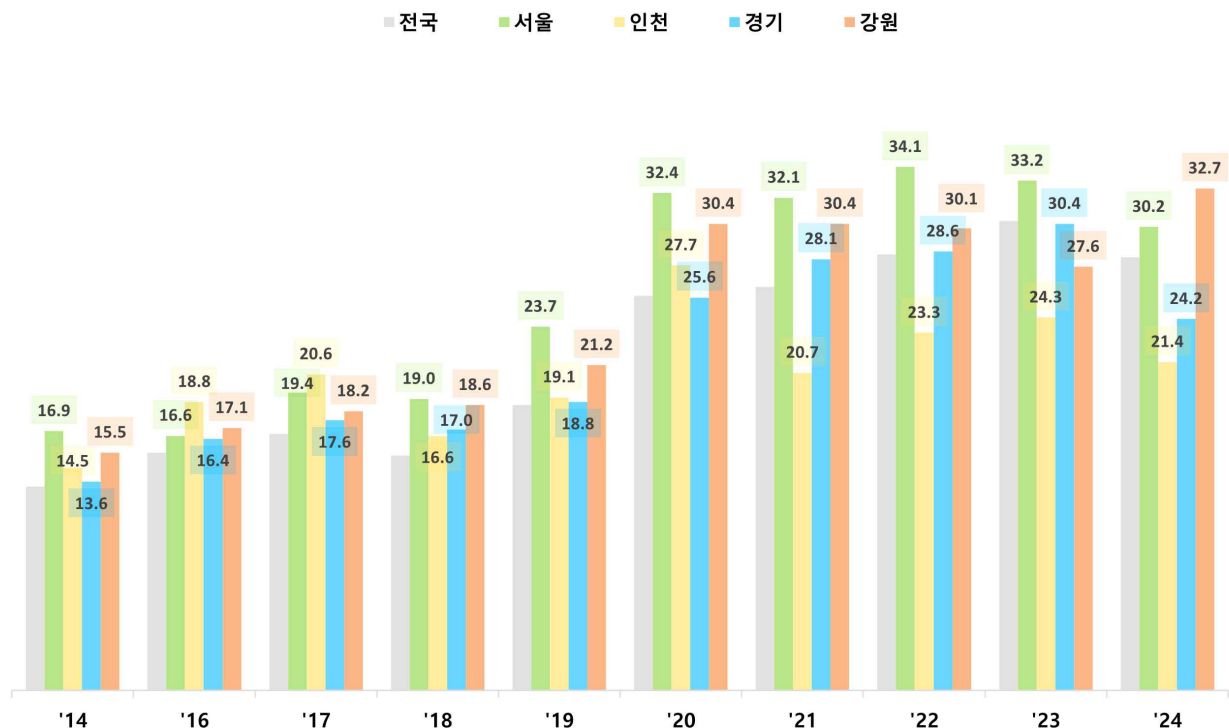
* 19세 이상 대상, '15년 조사 미 실시

- '24년 수도권역 혈당수치 인지율은 서울 30.2%, 인천 21.4%, 경기 24.2%, 강원 32.7%로, 강원이 가장 높았음
- * '24년 혈당수치 인지율은 전국 28.2%로, 대전에서 41.5%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 21.4%로 가장 낮았음
- 최근 10년간 혈당수치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을 유지해 오다가 '24년에는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감소하였음
- 인천 지역의 경우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14-'24년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단위: %)>

■(전국보다 높은 지역), ■(전국보다 낮은 지역)

구분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국	13.3	15.5	16.7	15.3	18.6	25.7	26.3	28.4	30.6	28.2
서울	16.9	16.6	19.4	19.0	23.7	32.4	32.1	34.1	33.2	30.2
인천	14.5	18.8	20.6	16.6	19.1	27.7	20.7	23.3	24.3	21.4
경기	13.6	16.4	17.6	17.0	18.8	25.6	28.1	28.6	30.4	24.2
강원	15.5	17.1	18.2	18.6	21.2	30.4	30.4	30.1	27.6	32.7



- '24년 전국 혈당수치 인지율 시·도 간 격차는 20.2%p이며, '23년 21.0%p 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역 격차는 11.3%p으로, '23년 8.9%p 대비 2.4%p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시·도 간 격차는 전국과 수도권역 모두 증가 추세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14-'24년 혈당수치 인지율 시·도 간 격차 추이(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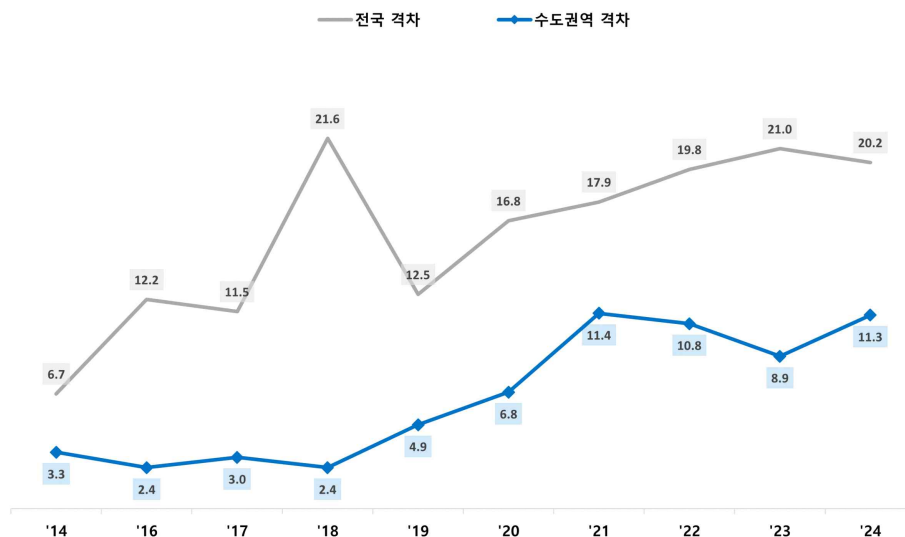
구분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년대비 차이 ²⁾
전국	격차 ¹⁾	6.8	12.2	11.5	21.6	12.5	16.8	17.9	19.8	21.0	20.2	↓
	최댓값	16.9	20.9	24.1	33.0	27.3	38.0	38.6	40.6	41.5	41.5	
	최솟값	10.2	8.7	12.6	11.3	14.8	21.2	20.7	20.9	20.5	21.4	
수도권역	격차	3.3	2.4	3.0	2.4	4.9	6.8	11.4	10.8	8.9	11.3	↑
	최댓값	16.9	18.8	20.6	19.0	23.7	32.4	32.1	34.1	33.2	32.7	
	최솟값	13.6	16.4	17.6	16.6	18.8	25.6	20.7	23.3	24.3	21.4	

1) 17개 시·도 지역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지표별 결과는 반올림값이므로, 일부 지표에서 제시한 격차값이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3년 대비 '24년 격차값의 변화 여부(↑: 증가, ↓: 감소)

- 개선인 경우 파란색, 악화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



- '24년 수도권역 시·군·구 간 격차는 서울 25.2%p, 인천 18.8%p, 경기 33.1%p, 강원 32.7%p로, 경기도가 가장 높았음
- 전년 대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시·군·구 간 격차가 감소 (1.0%p, 3.6%p, 19.8%p)하였고, 강원 지역은 증가(10.6%p)하였음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댓값이 감소함에 따라 시·군·구 간 격차가 감소하였고, 강원 지역은 최댓값과 최솟값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최댓값 증가 폭이 큼에 따라 격차도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수도권역 시·군·구 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며, 10년 전 대비 증가하였음

<'14-'24년 혈당수치 인지율 시·군·구 간 격차 추이(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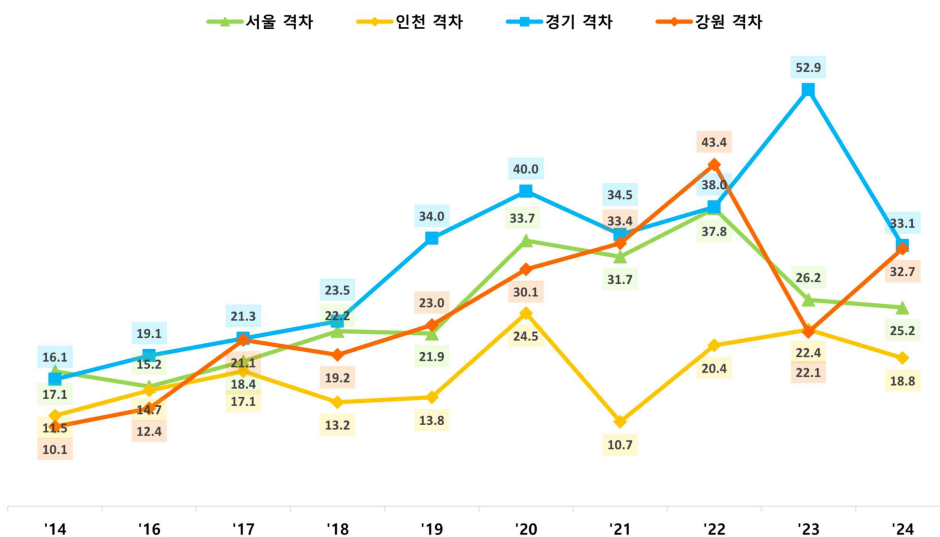
구분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년대비 차이 ²⁾
전국	격차 ¹⁾	25.3	24.3	35.4	38.8	35.0	49.7	40.5	52.4	56.6	47.8	↓
	최댓값	29.5	29.3	38.4	42.7	39.2	56.5	51.3	61.4	68.7	57.5	
	최솟값	4.2	5.0	3.1	3.9	4.2	6.8	10.8	9.1	12.2	9.7	
서울	격차	17.1	15.2	18.4	22.2	21.9	33.7	31.7	37.8	26.2	25.2	↓
	최댓값	28.1	27.0	29.8	29.6	37.2	50.7	49.8	56.1	46.1	43.7	
	최솟값	11.0	11.8	11.4	7.4	15.3	17.0	18.1	18.3	19.9	18.5	
인천	격차	11.5	14.7	17.1	13.2	13.8	24.5	10.7	20.4	22.4	18.8	↓
	최댓값	21.5	27.4	30.4	26.4	26.7	41.6	27.6	38.4	38.8	35.3	
	최솟값	10.0	12.7	13.3	13.2	12.9	17.1	16.9	18.0	16.4	16.5	
경기	격차	16.1	19.1	21.3	23.5	34.0	40.0	34.5	38.0	52.9	33.1	↓
	최댓값	24.9	29.3	29.0	30.7	38.2	52.5	48.0	52.3	68.7	48.4	
	최솟값	8.8	10.2	7.7	7.2	4.2	12.5	13.5	14.3	15.8	15.3	
강원	격차	10.1	12.4	21.1	19.2	23.0	30.1	33.4	43.4	22.1	32.7	↑
	최댓값	20.1	23.9	30.8	26.2	30.4	45.4	47.4	61.4	40.5	54.2	
	최솟값	10.0	11.5	9.7	7.0	7.4	15.3	14.0	18.0	18.4	21.5	

1) 256개 시·군·구 지역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지표별 결과는 반올림값이므로, 일부 지표에서 제시한 격차값이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결과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3년 대비 '24년 격차값의 변화 여부(↑: 증가, ↓: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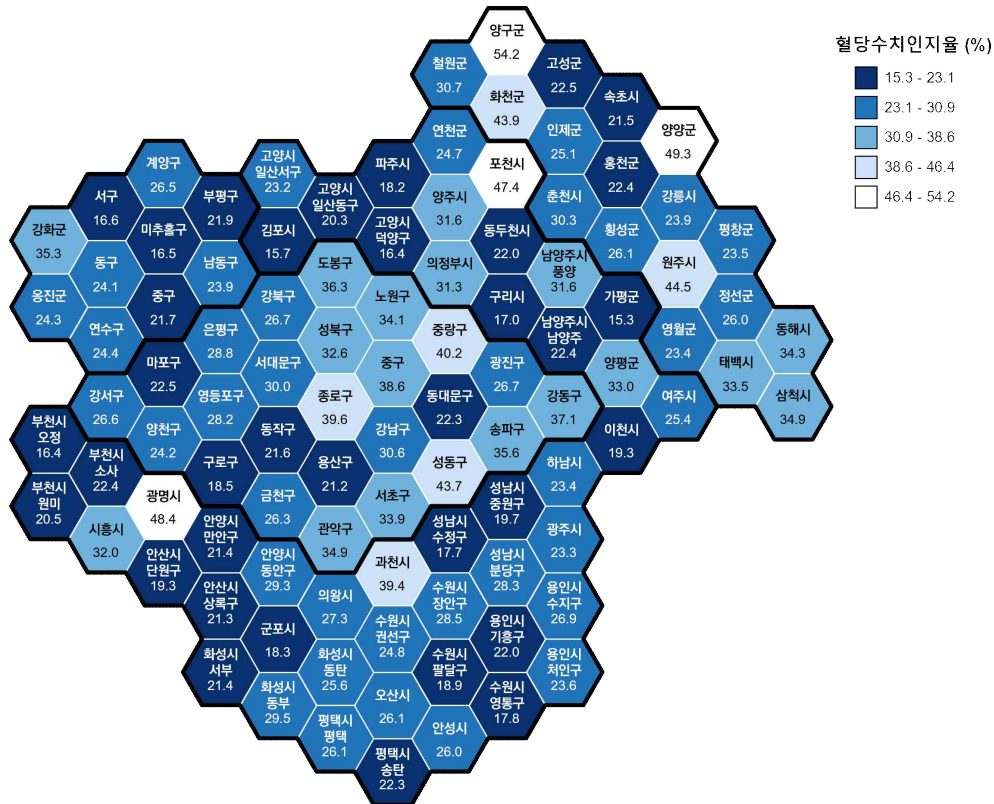
- 개선인 경우 파란색, 악화인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



○ '24년 수도권역 시·군·구별 혈당수치인지율은 강원 양구군에서 54.2%로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군에서 15.3%로 가장 낮았음

* 전국적으로는 경북 칠곡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고흥군이 9.7%로 가장 낮았음

< '24년 시·군·구별 혈당수치인지율 분포 >



*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연한 색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위	경북 칠곡군 (57.5)	성동구 (43.7)	강화군 (35.3)	광명시 (48.4)	양구군 (54.2)	전남 고흥군 (9.7)	구로구 (18.5)	미추홀구 (16.5)	가평군 (15.3)	속초시 (21.5)
2위	경북 경주시 (55.8)	종량구 (40.2)	계양구 (26.5)	포천시 (47.4)	양양군 (49.3)	경남 산청군 (12.1)	용산구 (21.2)	서구 (16.6)	김포시 (15.7)	홍천군 (22.4)
3위	경북 봉화군 (55.7)	종로구 (39.6)	연수구 (24.4)	과천시 (39.4)	원주시 (44.5)	경남 합천군 (12.5)	동작구 (21.6)	중구 (21.7)	부천시 오정, 고양시 덕양구 (16.4)	고성군 (22.5)
4위	경북 영양군 (54.4)	중구 (38.6)	웅진군 (24.3)	양평군 (33.0)	화천군 (43.9)	경북 예천군 (13.9)	동대문구 (22.3)	부평구 (21.9)		영월군 (23.4)
5위	강원 양구군 (54.2)	강동구 (37.1)	동구 (24.1)	시흥시 (32.0)	삼척시 (34.9)	경기 가평군 (15.3)	마포구 (22.5)	남동구 (23.9)	구리시 (17.0)	평창군 (23.5)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검진 결과에 따라 19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를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전체 대상 면접조사 결과로 산출하고 있어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국민건강영양조사 개요>

- (조사대상) 전국 192개 지역 내 25가구씩 총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
- (조사내용) ①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 ②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③음식 및 식품 섭취, 식생활 등 250여 개 건강지표 산출
- (조사방법) 이동검진차량 내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조사
- (조사기간) 연중(48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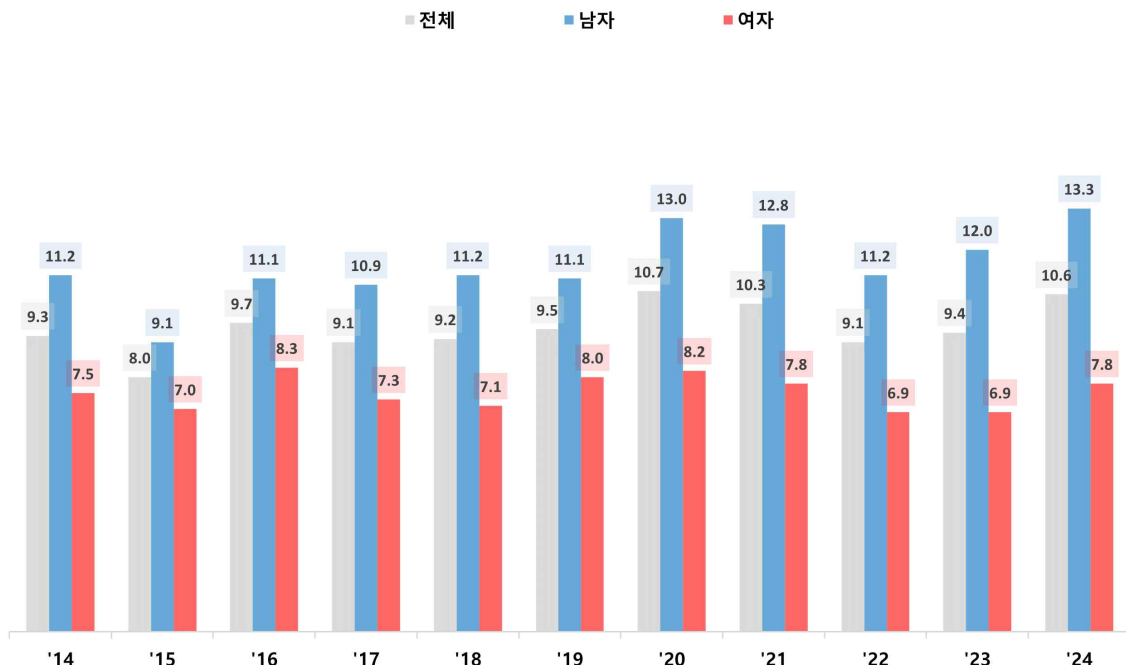
□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 * 19세 이상 대상, '22년 임상검사분석기관 변경으로 추이 비교 시 유의 필요

- '24년 당뇨병 유병률은 10.6%로, '23년 9.4% 대비 1.2%p 증가하였음
- * '24년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3.3%로 '23년(12.0%) 대비 1.3%p 증가하였고, 여자 7.8%로 '23년(6.9%) 대비 0.9%p 증가하였음
- 최근 10년간 당뇨병 유병률은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며 증가하였음

<'14-'24년 당뇨병 유병률(19세 이상) 추이(단위: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전체	9.3	8.0	9.7	9.1	9.2	9.5	10.7	10.3	9.1	9.4	10.6
남자	11.2	9.1	11.1	10.9	11.2	11.1	13.0	12.8	11.2	12.0	13.3
여자	7.5	7.0	8.3	7.3	7.1	8.0	8.2	7.8	6.9	6.9	7.8



□ 당뇨병 관리지표(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 **당뇨병 인지율:** 당뇨병 유병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
- **당뇨병 치료율:** 당뇨병 유병자(공복혈당 또는 당화혈색소 기준) 중 현재 혈당강하제를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율
- **당뇨병 조절률:** 당뇨병 치료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치료자 기준)
* 19세 이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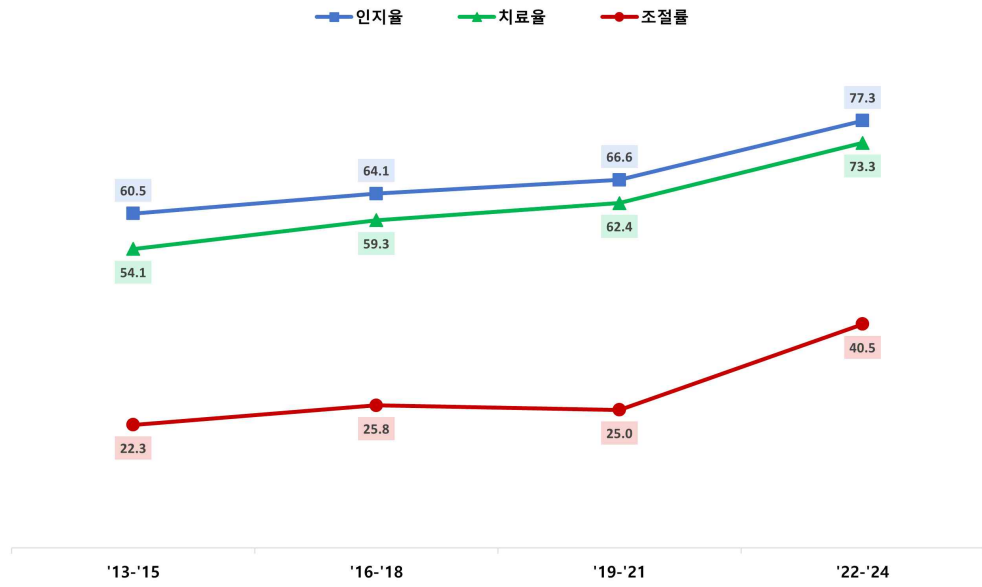
- '22-'24년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치료자 기준)은 '19-'21년 대비 남녀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 당뇨병 인지율: '22-'24년 **77.3%**로, '19-'21년 **66.6%** 대비 **10.7%p** 개선
* 남자: 64.9% → 74.5%(9.6%p ↑), 여자: 68.8% → 81.2%(12.4%p ↑)
 - 당뇨병 치료율: '22-'24년 **73.3%**로, '19-'21년 **62.4%** 대비 **10.9%p** 개선
* 남자: 59.6% → 69.6%(10.0%p ↑), 여자: 66.0% → 78.6%(12.6%p ↑)
 - 당뇨병 조절률: '22-'24년 **40.5%**로, '19-'21년 **25.0%** 대비 **15.5%p** 개선
* 남자: 23.1% → 40.8%(17.7%p ↑), 여자: 27.2% → 40.1%(12.9%p ↑)
- 최근 10년간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조절률은 연도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21년 이후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13-'15~'22-'24년 당뇨병 관리지표(19세 이상)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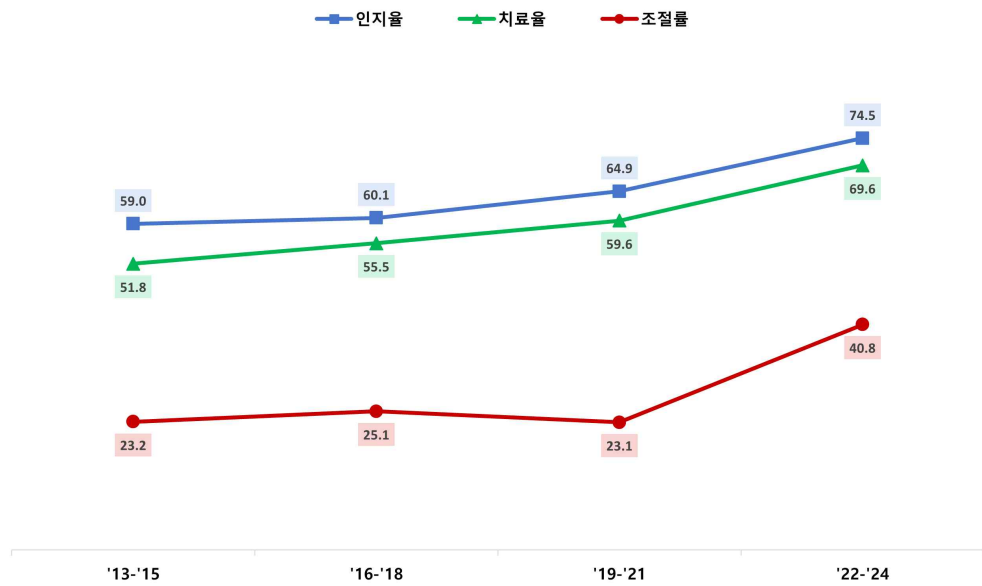
구분		'13-'15	'16-'18	'19-'21	'22-'24
당뇨병 인지율 (19세 이상)	전체	60.5	64.1	66.6	77.3
	남자	59.0	60.1	64.9	74.5
	여자	62.4	69.3	68.8	81.2
당뇨병 치료율 (19세 이상)	전체	54.1	59.3	62.4	73.3
	남자	51.8	55.5	59.6	69.6
	여자	57.0	64.0	66.0	78.6
당뇨병 조절률 (19세 이상)	전체	22.3	25.8	25.0	40.5
	남자	23.2	25.1	23.1	40.8
	여자	21.2	26.5	27.2	40.1

* 당해연도 자료만으로 적정 표본수 확보가 어려운 만성질환 관리지표는 3년 통합시기에 공표하며, '24년 결과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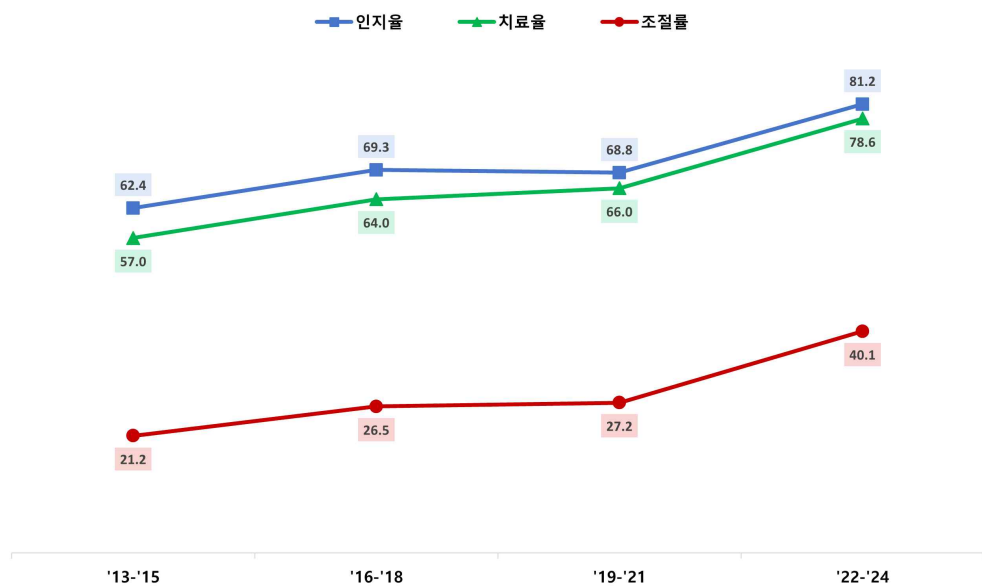
(전체)



(남자)



(여자)



- (운영목적)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여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
- (신고기간) 2025. 5. 15. ~ 9. 25.
- (신고주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517개 (수도권 212개)
- (신고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 (신고체계) 참여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 및 시도 → 질병관리청
- (통계산출) 지역구분은 '증상발생장소' 날짜는 '증상발생일' 기준으로 산출

* 자료원 :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자료

※ 수도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포함

□ 수도권역 온열질환 감시체계 신고현황

- ◆ 2025년 신고된 온열질환자 총 1,808명(온열질환 추정 사망 11명 포함)
 - 전년(1,367명) 대비 온열질환자 신고 32.3% 증가
 - 사망자는 전국 29명으로 전년(34명) 대비 14.7%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역은 총 11명(모두 열사병 추정)으로 전년 대비 57.1%(4명) 증가

- (발생자 특성) 50-60대, 남성, 단순노무종사자에서 많이 발생
 - (성별) 남자 1,420명(78.5%), 여자 388명(21.5%)
 - (연령) 50대 317명(17.5%), 60대 314명(17.4%), 30대 277명(15.3%) 순
 - (직업별) 단순노무종사자 419명(23.2%), 무직 271명(15.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81명(4.5%) 순
 - (질환별) 열탈진이 1,097명(60.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발생상황 특성) 가장 더운 시간(12-17시), 실외에서 많이 발생
 - (발생시간) 가장 더운 시간(12-17시) 46.5%로 높게 발생
 - (발생장소) 실외 1,417명(78.4%), 실내 391명(21.6%)

□ 수도권역 온열질환 감시체계 사망 신고사례

- 신고된 사망사례는 총 11명, 60대이상, 실외에서 많이 발생
 - (성별) 남성 8명(72.7%), 여자 3명(27.3%)
 - (연령) 60대이상 8명, 50대 2명, 20대 1명
 - (지역) 서울 3명, 인천 2명, 경기 6명
 - (질환) 사망자(11명)의 사인은 모두 열사병(100.0%)으로 추정

□ 시·도별 발생자 특성

- ◆ 전체 환자의 40.5%(1,808명)가 수도권역에서 발생
 - 서울 60.9%, 인천 36.6%, 경기 27.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20.4%)보다 높음
 - 65세이상, 남성, 실외, 단순노무종사자에서 많이 발생

- **(서울)** 65세이상, 남성, 운동장(공원)·길가에서 많이 발생
 - 최근 10년 감시기간 동안 중 올해 5월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19명으로 역대 가장 많고, 연령별 80세이상(19.6%), 50대(18.3%), 30대(15.6%) 순
 - 06~12시와 12~17시에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229명) 중 64.2% (147명)가 운동장(공원)·길가에서 발생
- **(인천)** 65세이상, 남성, 가장 더운 시간대(12-17시)에 많이 발생
 - 최근 10년 감시기간 동안 중 올해 가장 많이 발생(280명), 연령별 60대(19.6%), 20대(15.0%), 30-40대(12.5%) 순이었음
 -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17시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51.8%(145명), 4개 시도 중 가장 높음
- **(경기)** 20-30대, 남성, 실외작업장 및 단순노무종사자에서 많이 발생
 - 최근 10년 감시기간 동안 중 올해 가장 많이 발생(978명), 성별로는 남자가 서울·인천·강원보다 약 6~8% 높음(남자 82.0%, 여자 18.8%)
 - 실외작업장 발생이 37.2%(364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8.9% (283명)로 4개 시도 중 가장 높음
- **(강원)** 65세이상, 남성, 논밭·길가 및 농림어업숙련종사자에서 많이 발생
 - 실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중 논밭·길가가 34.3%(59명)이며,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5%(25명)로 4개 시도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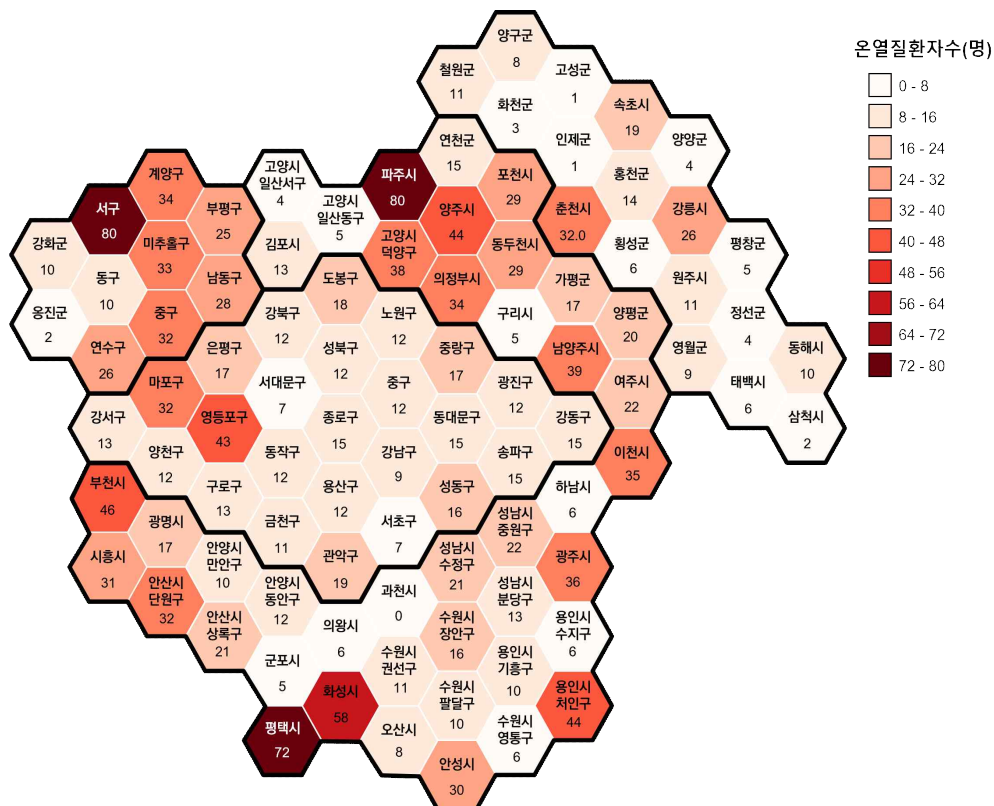
□ 주요 결과

※ 수도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포함

- **(발생규모)** '25년 9월 25일까지 신고된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총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전체 환자의 40.5%(1,808명)가 수도권역에서 발생
 - 서울은 60.9%, 인천은 36.6%, 경기도는 27.5%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20.4%)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강원은 7.5% 증가하였음

구분	감시기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4년 환자수(명)	5.20.~9.30.	3,704	1,367	235	205	767	160
'25년 환자수(명)	5.15.~9.25.	4,460	1,808	378	280	978	172
증가율(%)		20.4	32.3	60.9	36.6	27.5	7.5
'24년 사망자수(명)	5.20.~9.30.	34	7	2	1	2	2
'25년 사망자수(명)	5.15.~9.25.	29	11	3	2	6	0
증가율(%)		▲14.7	57.1	50.0	100.0	200.0	▲100.0

<'25년 수도권역 시·군·구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증상발생장소 기준)>



- **(주별)** 온열질환자는 감시 시작 기준 7월 5주(429명), 7월 2주(418명), 7월 4주(298명)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이는 수도권역 발생(1,808명)의 약 63.3%(1,145명)에 해당

주별	5.15-5.17	5.18-5.24	5.25-5.31	6.1-6.7	6.8-6.14	6.15-6.21	6.22-6.28	6.29-7.5	7.6-7.12	7.13-7.19	7.20-7.26	7.27-8.2	8.3-8.9	8.10-8.16	8.17-8.23	8.24-8.30	8.31-9.6	9.7-9.13	9.14-9.20	9.21-9.25	계
전국	14	33	16	29	62	102	120	450	729	60	752	803	214	254	346	257	126	32	44	17	4,460
수도권	14	17	5	9	33	45	24	87	418	32	298	429	83	51	110	78	34	18	9	14	1,808
서울	13	4	2	2	12	18	7	19	79	3	44	97	11	4	17	15	7	10	6	8	378
인천	0	3	0	0	3	3	0	10	82	9	46	56	23	7	16	13	7	1	0	1	280
경기	0	8	3	5	13	13	15	45	227	19	186	231	44	31	67	46	16	6	3	0	978
강원	1	2	0	2	5	11	2	13	30	1	22	45	5	9	10	4	4	1	0	5	172

- **(성별)** 성별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전국 남자 79.7%, 여자 20.3%이었으며, 전국 구성비와 유사한 수준이었음

시도	계	남자	여자
전국	(명)	4,460	907
	(%)	100.0	20.3
수도권	(명)	1,808	388
	(%)	100.0	21.5
서울	(명)	378	93
	(%)	100.0	24.6
인천	(명)	280	74
	(%)	100.0	26.4
경기	(명)	978	176
	(%)	100.0	18.0
강원	(명)	172	45
	(%)	100.0	26.2

- **(발생연령)** 서울·인천·강원은 65세이상에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서울 37.6, 인천 32.5%, 강원 30.8%) 전국 30.1%보다 높았음
- 20대에서는 인천, 강원, 경기 30대에서는 강원, 서울, 경기도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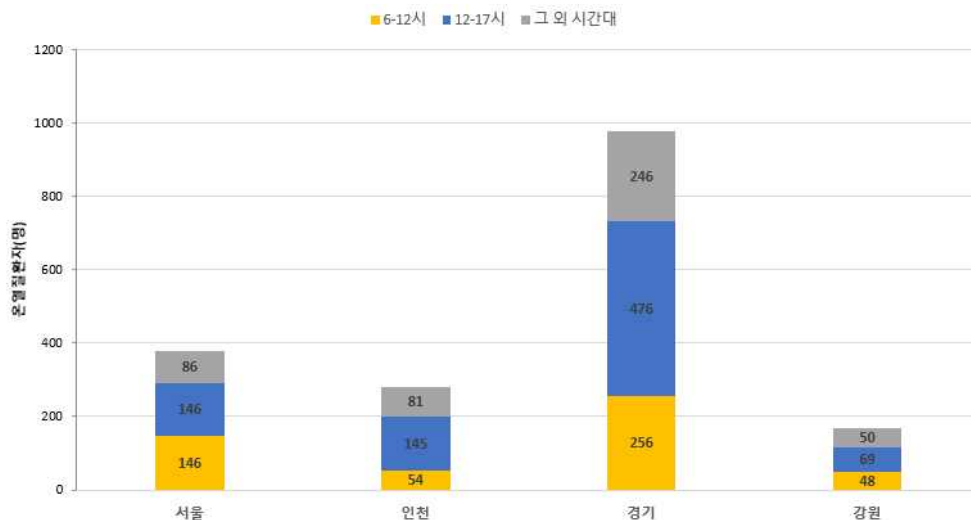
시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65세이상
전국	(명)	4,460	9	132	445	608	603	865	834	485	1,341
	(%)	100.0	0.2	3.0	10.0	13.6	13.5	19.4	18.7	10.9	30.1
수도권	(명)	1,808	6	64	209	277	218	317	314	206	544
	(%)	100.0	0.3	3.5	11.6	15.3	12.1	17.5	17.4	11.4	30.1
서울	(명)	378	0	11	35	59	41	69	38	51	142
	(%)	100.0	0.0	2.9	9.3	15.6	10.8	18.3	10.1	13.5	37.6
인천	(명)	280	3	13	42	35	35	34	55	34	91
	(%)	100.0	1.1	4.6	15.0	12.5	12.5	12.1	19.6	12.1	32.5
경기	(명)	978	3	35	108	153	127	184	186	106	258
	(%)	100.0	0.3	3.6	11.0	15.6	13.0	18.8	19.0	10.8	26.4
강원	(명)	172	0	5	24	30	15	30	35	15	53
	(%)	100.0	0.0	2.9	14.0	17.4	8.7	17.4	20.3	8.7	30.8

- **(질 환 분 류)** 4개 시·도 모두 열탈진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열사병 순이었음

시도		계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전국	(명)	4,460	667	2,767	613	345	3	65
	(%)	100	15.0	62.0	13.7	7.7	0.1	1.5
수도권	(명)	1,808	305	1,097	201	190	1	14
	(%)	100.0	16.9	60.7	11.1	10.5	0.1	0.8
서울	(명)	378	89	183	33	70	0	3
	(%)	100.0	23.5	48.6	8.9	18.9	0.0	0.8
인천	(명)	280	40	180	33	26	1	0
	(%)	100.0	14.3	64.3	11.8	9.3	0.4	0.0
경기	(명)	978	137	637	121	73	0	10
	(%)	100.0	14.0	65.1	12.4	7.5	0.0	1.0
강원	(명)	172	39	97	14	21	0	1
	(%)	100.0	22.7	56.4	8.1	12.2	0.0	0.6

- **(발생 시간)** 4개 시·도 모두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인천 51.8%, 경기 48.7%, 강원 43.0%, 서울 38.6%)하였음
- 서울은 06~12시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도 38.6%로 12~17시와 동일하게 발생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았음

시도		계	00-06	06-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4
전국	(명)	4,460	88	521	361	382	409	387	438	481	436	323	258	376
	(%)	100.0	2.0	11.7	8.1	8.6	9.2	8.7	9.8	10.8	9.8	7.2	5.8	8.4
수도권	(명)	1,808	42	214	131	159	158	163	164	175	181	140	104	177
	(%)	100.0	2.3	11.8	7.2	8.8	8.7	9.0	9.1	9.7	10.0	7.7	5.8	9.8
서울	(명)	378	9	61	46	39	26	29	25	36	30	20	18	39
	(%)	100.0	2.4	16.1	12.2	10.3	6.9	7.7	6.6	9.5	7.9	5.3	4.8	10.3
인천	(명)	280	10	23	12	19	25	25	32	33	30	20	15	36
	(%)	100.0	3.6	8.2	4.3	6.8	8.9	8.9	11.4	11.8	10.7	7.1	5.4	12.9
경기	(명)	978	21	105	61	90	94	85	95	97	105	81	60	84
	(%)	100.0	2.1	10.7	6.2	9.2	9.6	8.7	9.7	9.9	10.7	8.3	6.1	8.6
강원	(명)	172	2	25	12	11	13	24	12	9	16	19	11	18
	(%)	100.0	1.2	14.5	7.0	6.4	7.6	14.0	7.0	5.2	9.3	11.0	6.4	10.5



<2025년 수도권역 시간대별 온열질환자 발생 비교>

- **(발생장소)** 서울은 운동장 등 공원, 길가에서 46.0%, 경기·인천은 실외 작업장, 길가에서(^{경기}48.2%, ^{인천}41.8%), 강원은 논밭, 길가에서 34.3%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시도		실외									실내					
		소계	작업장	운동장(공원)	논밭	산	강가/해변	길가	주거지주변	기타	소계	집	건물	작업장	비닐하우스	기타
전국	(명)	3,534	1,431	237	542	119	52	522	186	445	926	237	137	359	53	140
	(%)	79.2	32.1	5.3	12.2	2.7	1.2	11.7	4.2	10.0	20.8	5.3	3.1	8.0	1.2	3.1
수도권	(명)	1,417	526	111	126	37	13	324	72	208	391	124	58	131	9	69
	(%)	78.4	29.1	6.1	7.0	2.0	0.7	17.9	4.0	11.5	21.6	6.9	3.2	7.2	0.5	3.8
서울	(명)	283	64	30	6	4	1	144	12	22	95	51	17	11	0	16
	(%)	74.9	16.9	7.9	1.6	1.1	0.3	38.1	3.2	5.8	25.1	13.5	4.5	2.9	0.0	4.2
인천	(명)	202	72	18	4	9	2	45	17	35	78	19	9	34	0	16
	(%)	72.1	25.7	6.4	1.4	3.2	0.7	16.1	6.1	12.5	27.9	6.8	3.2	12.1	0.0	5.7
경기	(명)	785	364	52	85	14	5	107	36	122	193	49	21	83	5	35
	(%)	80.3	37.2	5.3	8.7	1.4	0.5	10.9	3.7	12.5	19.7	5.0	2.1	8.5	0.5	3.6
강원	(명)	147	26	11	31	10	5	28	7	29	25	5	11	3	4	2
	(%)	85.5	15.1	6.4	18.0	5.8	2.9	16.3	4.1	16.9	14.5	2.9	6.4	1.7	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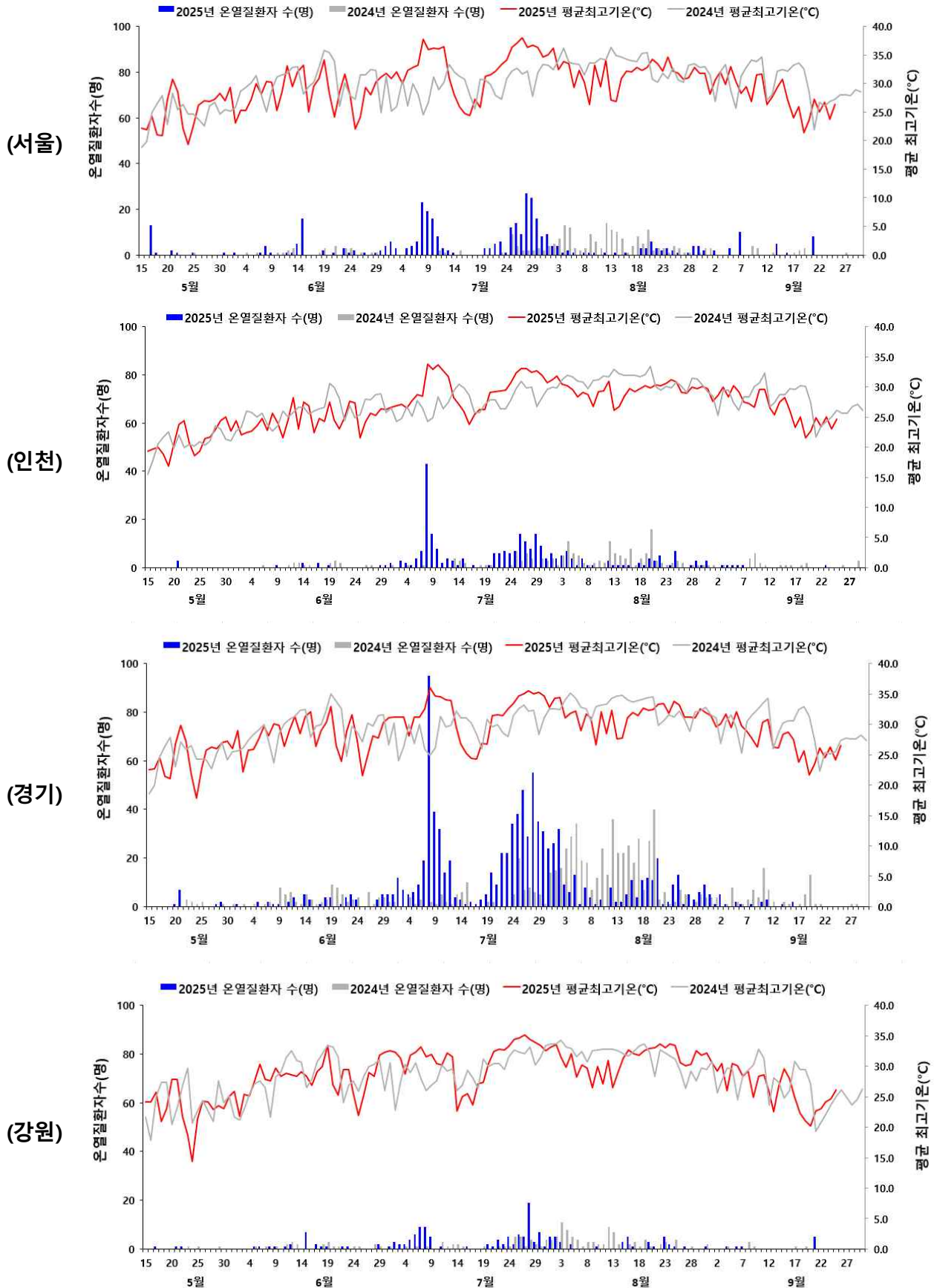
- **(직업)** 경기·인천은 단순노무종사자가 ^{경기}28.9%, ^{인천}26.8%로 많았으며, 강원은 농림어업숙련종사가 14.5%로 많았음

시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주부	학생	무직 (노숙인 제외)	노숙인	미상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국	(명)	4,460	42	184	105	128	40	348	114	166	1,160	100	156	166	589	8	657	497
	(%)	100.0	0.9	4.1	2.4	2.9	0.9	7.8	2.6	3.7	26.0	2.2	3.5	3.7	13.2	0.2	14.7	11.1
수도권	(명)	1,808	14	69	51	71	15	81	51	48	419	72	49	73	271	3	336	185
	(%)	100.0	0.8	3.8	2.8	3.9	0.8	4.5	2.8	2.7	23.2	4.0	2.7	4.0	15.0	0.2	18.6	10.2
서울	(명)	378	1	13	18	15	5	2	10	8	49	3	10	17	100	1	92	34
	(%)	100.0	0.3	3.4	4.8	4.0	1.3	0.5	2.6	2.1	13.0	0.8	2.6	4.5	26.5	0.3	24.3	9.0
인천	(명)	280	3	15	4	17	3	8	2	10	75	16	3	13	50	1	38	22
	(%)	100.0	1.1	5.4	1.4	6.1	1.1	2.9	0.7	3.6	26.8	5.7	1.1	4.6	17.9	0.4	13.6	7.9
경기	(명)	978	10	39	21	31	6	46	32	25	283	45	31	38	102	1	154	114
	(%)	100.0	1.0	4.0	2.1	3.2	0.6	4.7	3.3	2.6	28.9	4.6	3.2	3.9	10.4	0.1	15.7	11.7
강원	(명)	172	0	2	8	8	1	25	7	5	12	8	5	5	19	0	52	15
	(%)	100.0	0.0	1.2	4.7	4.7	0.6	14.5	4.1	2.9	7.0	4.7	2.9	2.9	11.0	0.0	30.2	8.7

온열질환 추정 사망 신고사례

발생지역	성별	연령(대)	발생장소	직업	증상발생일
서울 중랑구	여	70대	운동장(공원)	알 수 없음	6.19.
경기 이천시	남	80대	산	무직	7.2.
경기 파주시	남	60대	길가	무직(노숙인제외)	7.23.
경기 성남시	남	50대	실외 기타	알 수 없음	7.25.
경기 화성시	남	70대	논밭	농부	7.28.
인천 서구	여	90대	자택	무직	7.29.
서울 강동구	남	70대	길가	기타	7.30.
서울 관악구	남	80대	집	무직(노숙인제외)	7.31.
경기 파주시	남	50대	집	무직	8.2.
인천 부평구	여	70대	길가	무직	8.5.
경기 포천시	남	20대	길가	군인	9.5.

□ 시·도별 발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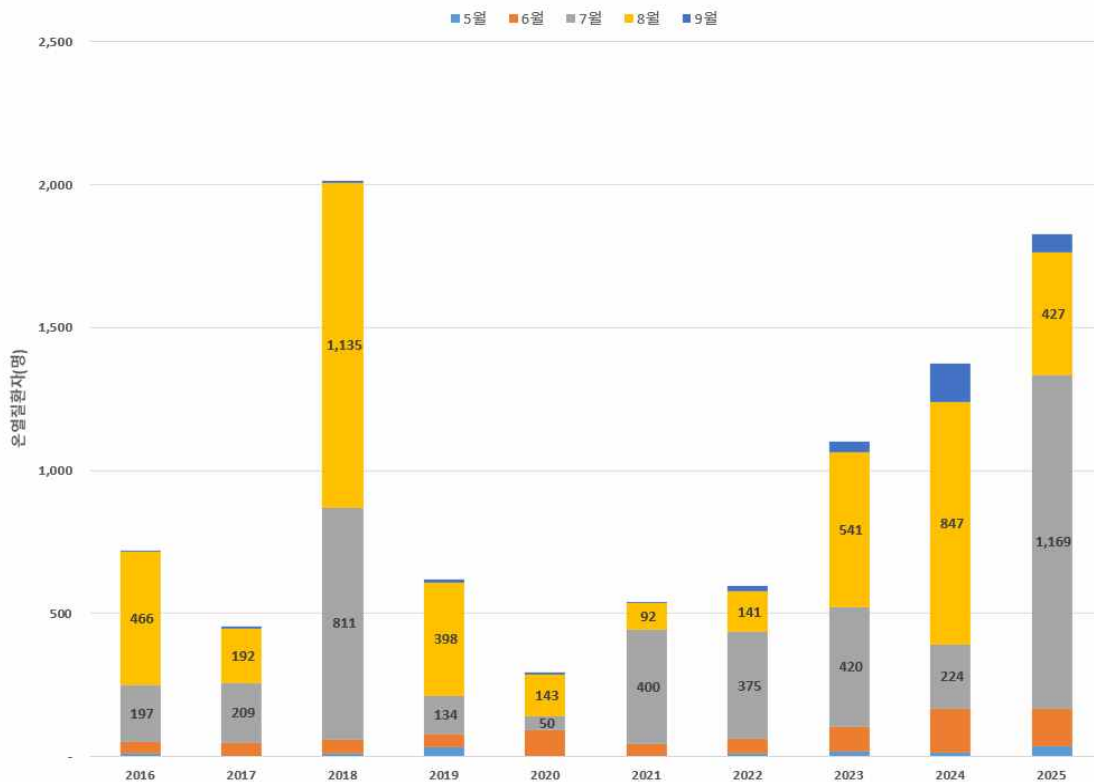
□ 발생추이

※ 감시기간: 5.20.~9.30.(2025년: 5.15.~9.25.)

- 2025년에 수도권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1,808명으로, 최근 10년 감시기간 동안 2018년(2,014명) 다음으로 많이 발생
- 월별 발생 추이는 2025년 7월에 온열질환자 1,16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표 1.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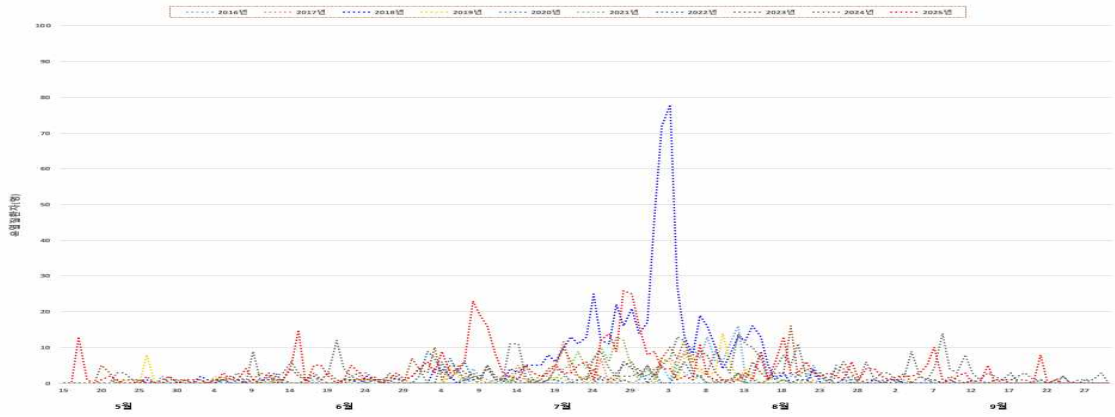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2,125	1,574	4,526	1,841	1,078	1,376	1,564	2,818	3,704	4,460
누계	(명)	721	453	2,014	620	294	539	596	1,102	1,373	1,808
	(%)	33.9	28.8	44.5	33.7	27.3	39.2	38.1	39.1	37.1	40.5
수도권	5월	(명)	10	2	8	31	2	1	8	19	14
		(%)	1.4	0.4	0.4	5.0	0.7	0.2	1.3	1.7	2.0
	6월	(명)	42	45	52	46	90	42	53	84	153
		(%)	5.8	9.9	2.6	7.4	30.6	7.8	8.9	7.6	11.1
	7월	(명)	197	209	811	134	50	400	375	420	224
		(%)	27.3	46.1	40.3	21.6	17.0	74.2	62.9	38.1	16.3
	8월	(명)	466	192	1,135	398	143	92	141	541	847
		(%)	64.6	42.4	56.4	64.2	48.6	17.1	23.7	49.1	61.7
	9월	(명)	6	5	8	11	9	4	19	38	135
		(%)	0.8	1.1	0.4	1.8	3.1	0.7	3.2	3.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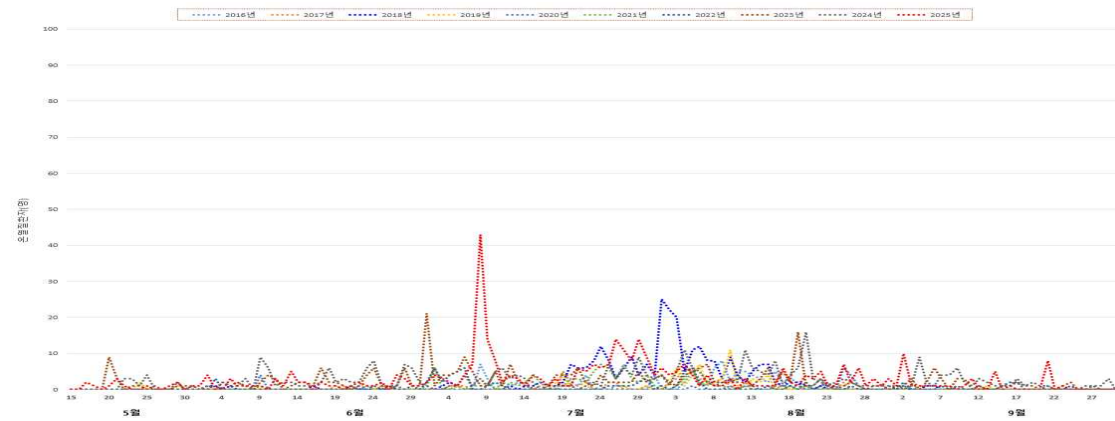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10년간 온열질환 신고건수 및 수도권역 비중>

□ 시·도별 발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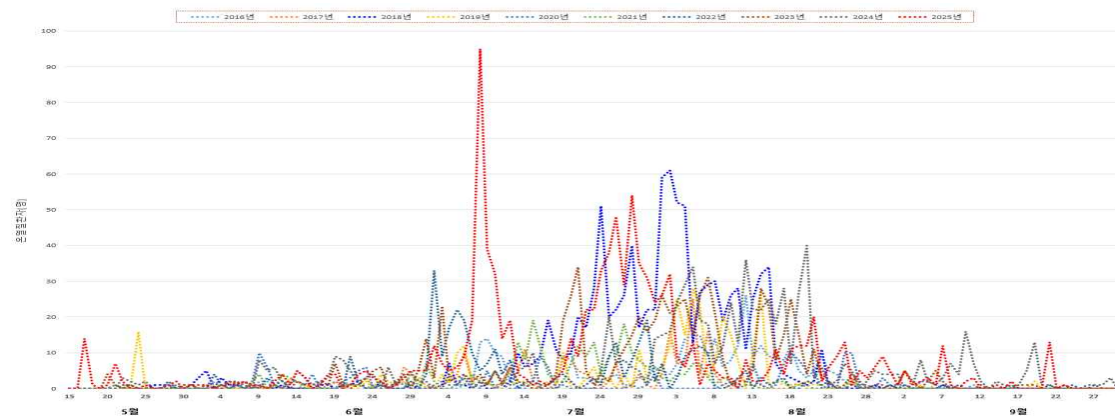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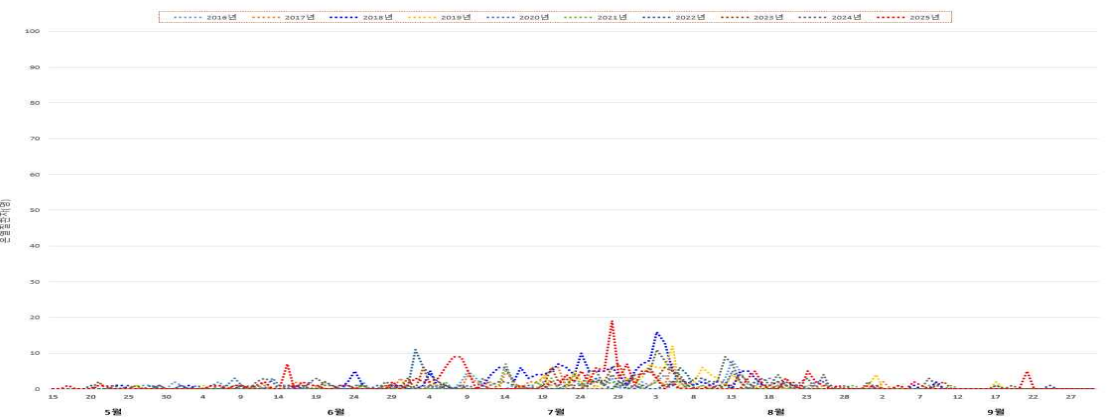
(인천)



(경기)



(강원)



서울특별시

어르신 건강커뮤니티 '서울 건강장수센터' 운영

□ 목적

- 초고령화 대비 지속가능한 건강노화 지원 기반을 마련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관리함으로써 어르신 등의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대상) 65세이상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등
- (기간) 2025. 1. ~ 12.(연례반복)
- (추진방법) 자치구 공모 통하여 추진
- (주요내용) 어르신 건강관리를 통합, 대상자 중심의 서울 건강장수센터 조성
 - (거점) 자치구 보건지소 활용, 권역별 3~4개 「건강장수센터」 조성
 - (기능) 건강·의료·복지 등 지역지원을 포괄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허브로서 통합관리 · (맞춤형서비스) 어르신 대상 맞춤형 건강노화 및 자립적 생활유지 지원

대상군	대상	서비스 내용	목표
건강유지군 (자기역량지원군)	자립적이고 건강한 재가 어르신	정기검진, 건강교육 등 (손목닥터9988, 건강장수사업)	건강한 노화 달성, 기능증진 (Healthy aging)
	질환은 있으나 건강한 재가 어르신	합병증 예방·관리, 노쇠 조기 발견 등(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정기관리군	질환유무 무관하게 일부 의존적 기능저하 어르신(전 노쇠)	일상생활 기능상실 최소화를 위한 예방관리(건강장수사업, 방문건강관리)	자립성 강화 및 유지 (Independent aging)
집중관리군	기능장애를 가진 의존적 어르신(노쇠)	건강악화 예방 및 간병부담 완화 (건강동행, 방문진료, 재가요양)	

- (규모) 5개 자치구(은평구, 금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3개 센터 운영
 - * 2024년 시범자치구 2개구(금천구, 은평구) 7개 센터 운영
- (총사업비, '25년) 1,663백만원(시비 933백만원, 구비 830백만원)
 - * 시구비 분담비율 50:50
- (향후계획) '30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 확대·운영 예정

<관련 기사>

-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건강장수센터' 서비스이용 어르신 561명 건강지표를 분석한 결과, 혈압, 체력 등 10개 항목 전체에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서울건강장수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어르신 대상 질병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참고] 매일경제, 데일리안 등(2025.5.29.)

- 은평구 서울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관계증진을 돕기 위해 지역어르신과 이를 지원하는 장수헬퍼가 주2회 걷기와 신체활동 인지와 정서활동을 함께하는 '삼삼오오·도란도란'건강소모임을 9월부터 11월까지 12주간 운영한다

[참고] 한겨레, 이코노미인사이트 등(2025.8.20.)

참고1 당뇨병 알아보기

정의

혈액중의 포도당(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성분입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췌장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되어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은 이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넘쳐 나오게 되며, 이런 병적인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

당뇨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비만, 연령, 식생활, 운동부족, 스트레스, 성별, 호르몬 분비, 감염증, 약물복용, 외과적 수술 등)이 함께 작용하여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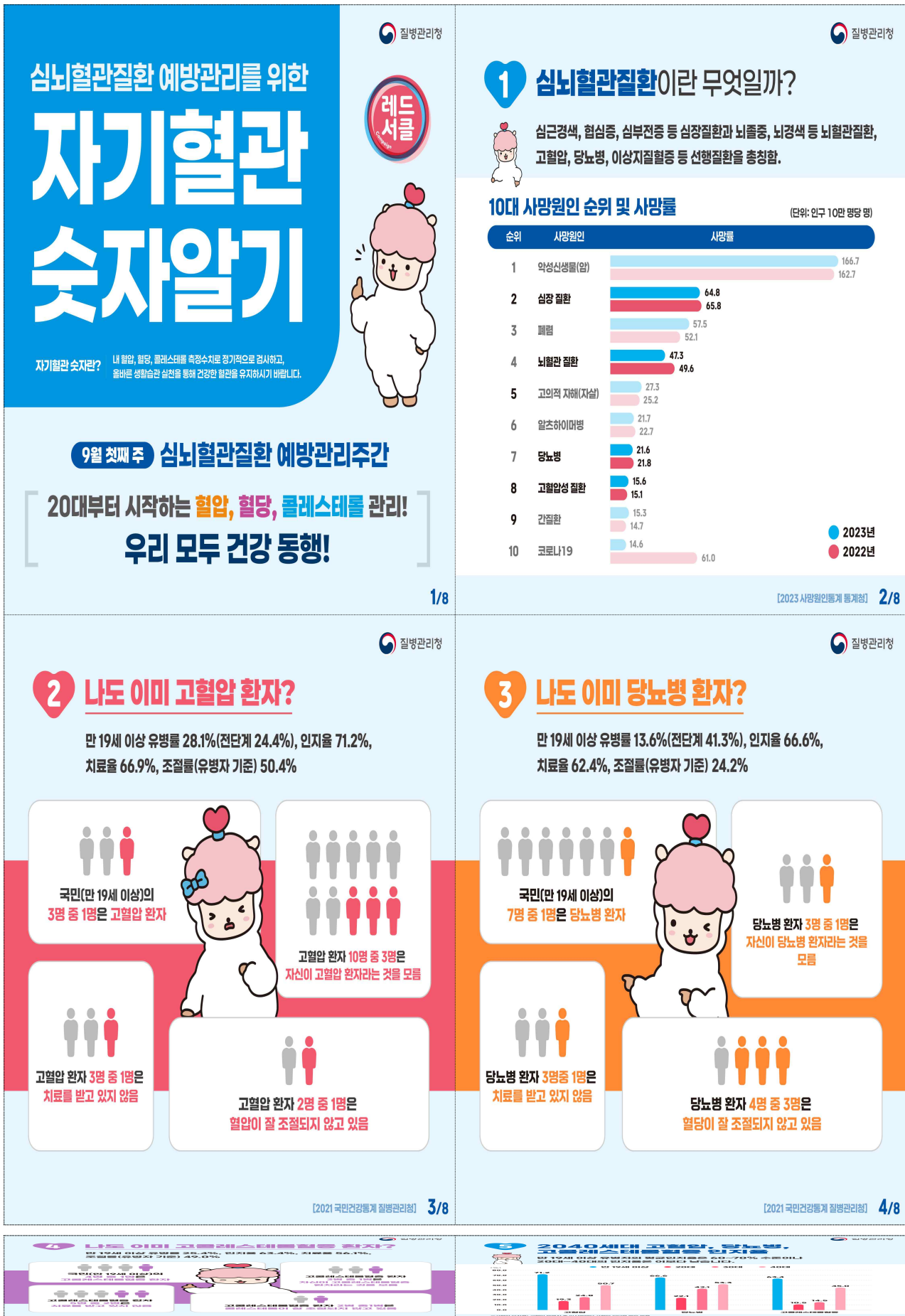
증상/진단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몸 안의 수분이 모자라 갈증이 심하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공복감은 심해지고 점점 더 먹으려 합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은 다음(多飮), 다식(多食), 다뇨(多尿)이지만 이외에도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에 대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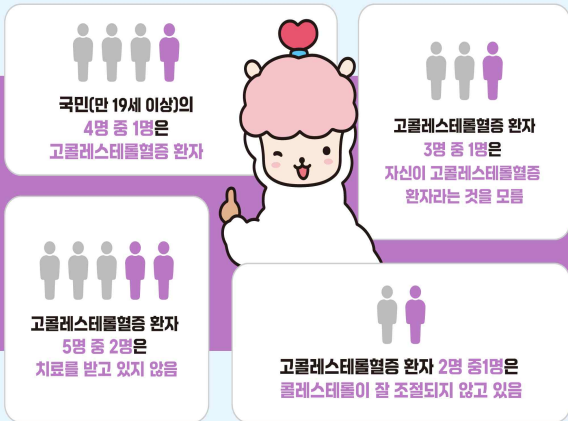
1. 연령·체형 40세 이상으로 비만한 사람
2. 가족력 가까운 친척 중에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
3. 자각증상 갈증, 다음, 다뇨, 다식, 피로감,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4. 당뇨병이 합병되기 쉬운 질환이 있는 사람(고혈압, 췌장염, 내분비 질환, 담석증)
5. 당뇨병 발병을 촉진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다이아자이드계 혈압 강하제나 신경통에 쓰이는 부신피질 호르몬 인 스테로이드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참고] 대한당뇨병학회



4 나도 이미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만 19세 이상 유병률 25.4%, 인지율 63.4%, 치료율 56.1%,
조절률(유병자 기준)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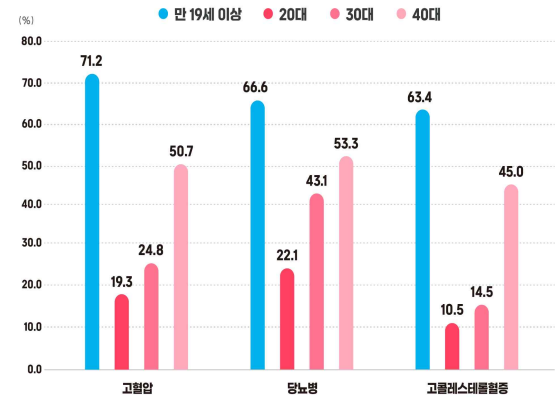


[202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5/8

5 2040세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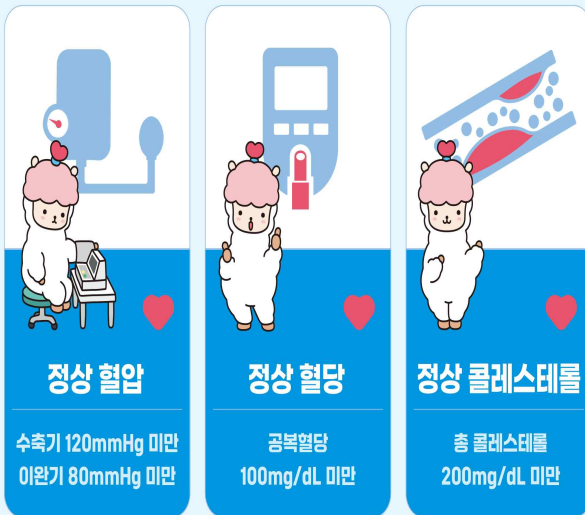
만 19세 이상 유병자의 평균인지율은 60~70% 수준이나
20대~40대의 인지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고혈압 인지율]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
*[당뇨병 인지율]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을 받은 분

[2021 국민건강통계 질병관리청] 6/8

건강한 혈관을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7/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 ✓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
- ✓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찢지 않게 먹고, 통곡물, 채소, 콩,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 ✓ **적당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받습니다.
- ✓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부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

[당뇨병] 건강고지서(당뇨병) 자료실
[당뇨병] 건강고지서(당뇨병) 자료실

*뇌졸중 초기증상: 왼쪽/오른쪽 마비, 감각소실,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심근경색 초기증상: 갑작스러운 가슴통증, 쇠약감,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땀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참고)

8/8